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 후기

행정학과 윤민욱

아시아 공동체,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일 수 있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며, 2차 대전기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확한 의미의 아시아 공동체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보통 지역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모두 유럽 연합 (EU)를 생각할 것이다. 현재는 조금씩 문제점과 함께 브렉시트 사태 등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유럽 연합이지만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국가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협력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아시아 상황을 보면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유럽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을 것일까? 이 수업의 최종목표이기도 하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취해야 할 스탠스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남아 등은 자신만의 스탠스를 가지고 지역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로 경제적 협력을 위주로 한 공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가 유럽에서 나타난 지역통합의 사례처럼 전면적인 협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아시아에서도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가 통합으로 향하는 가장 쉬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이 아시아공동체 설립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유사한 경제구조로 인해 성장과정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매우 유사한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한일 두 나라만의 협력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은 특히 세계 무역시장 전체에서도 부각된다. 중간재 교역을 위주로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아시아 경제가 갑작스러운 대외 충격에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결국 얼어붙게 된 것을 보면 경제 협력이 꼭 지역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으며,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사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정치적 다툼과 국민감정이 지역통합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구의 제국주의로 인한 영향과 일본의 제국주의화로 인한 큰 충격으로 인한 과거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공동체라는 하나의 무대가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묵은 역사적 감정 같은 일들이 일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불과 수 십 년 전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웠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통

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젊은 세대부터 서로가 어째서 다른지 왜 다르게 되었는지 알아가면서 변화를 이끌어 갔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도 이와 같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과거의 묵은 감정보다는 서로가 세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들어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심하게 몰아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방식의 감정싸움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도 험한 단체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타국가에 대해서 지켜야할 선이 민간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너무 무시하고 타국민의 감정까지 건드리는 행위를 정부에서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미국의 경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일본의 경우 천황에 대한 비하, 대사관 정면에 대한 도발 등, 국가에서 나서서 막아야할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반대로 태극기가 불태워지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험한 시위가 일어난다면 저런 행위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은 떳떳하게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할 선은 지키고,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전시켜서 다른 영역과 같은 곳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한 후에는 중국과 일본이 각자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대국이다. 현재처럼 중국에게 굽신거리려서 앞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한국의 참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생각이 훨씬 확고해질 수 있었다. 다른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호와 혐오보다는 이제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 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은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대립만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수업이었고,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현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서구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시아의 잠재력과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파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아시아가 마냥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국제학부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